



남원시, 7개 단체에 양성평등기금 지원 결정

남원시는 지난 7일,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남원시 양성평등기금을 7개 단체에 3,500만원 지원을 결정하였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양성평등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기금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단체는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남원엄마들의 사랑방네트워크, 나무아름다, 좋은날 이백수정팔, 노는엄마들, 아영 아꿈 부모회로, 11월까지 각자의 사업을 추진하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한부모가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차남)는 자녀 3명을 돌보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로 선정, 치과치료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었다.

이번 지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월드비전이 협력하는 발굴된 위기아동 지원을 위한 e아동복지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은 지출 대부분이 치과 치료비에 가장 많이 지출되어 있어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상 가정은 "이번 지원 덕분에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하며, 아동은 맞춤형 행복자킴으로 감사의 손 편지를 전달했다.

김차남 동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밀접히 소통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무주지점, 고향사랑 2500만원 기탁

전북은행 무주지점 임직원들과 지인 등 233명이 지난 9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천5백만 원을 기탁했다.

김성수 지점장은 "임직원들 모두 무주가 고향이라는 생각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이번 기탁은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까지 동참해 의미가 깊다"라고 전했다.

전북은행 무주지점은 2023년부터 무주군에 연속해서 고향사랑기부금(6천8백만 원)을 하고 있으며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무주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품 등을 지원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뉴텍 대표이사, 김제시에 고향사랑 3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뉴텍 유영우 대표이사가 9일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주)뉴텍은 완주군에 소재해 자동차 부품 및 농업, 임업용 기계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유영우 대표이사는 "영소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엔 김제시에 기부하게 되었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복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유영우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부금은 김제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2024년 사업으로 '치매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 인형 지원 사업'과 '청년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을 선정해 추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산 파프리카 종자, 수출 길 넓힌다’

김제에서 수출용 국산 파프리카 종자 실증시험 현장 품평회 열려

국산 파프리카 종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수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수출용 국산 종자 5차 동작기 실증시험 현장 품평회'가 9일(수) 오전 11시 전북 김제시 봉산면 유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농업회사법인 코퍼(주)가 주최하고, 종자 개발 전문기업 씨드이플랫(주)이 주관했다.

이 행사를 통해 국산 파프리카 종자의 성능을 농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국내 재배 확대는 물론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품평회에서는 '로망스 골드', '레드 로망' 등 국산 우수 품종의 거울철 대면적 재배 결과가 발표되어 참석자의 눈길을 끌었다.

이들 품종은 색상, 광택, 과일 크기 등에서 다른 파프리카종에 비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도 시장성이 기대되어 외화획득에 도움이 되는 품종이다.

씨드이플랫 고진수 대표는 행사에서 직접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해서 주목받았다.

행사 참석자는 실증시험에 참여한 파프리카 재배 농



가 연구구역 관계자 코퍼(주) 소속 농가 등이 참석했다. 그간 국산 파프리카 종자 실증시험은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주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꾸준히 진행돼 왔다.

코퍼(주) 신행민 대표는 "국산 종자의 재배 매뉴얼과 수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농가 소득 향상과 종자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외 종자 의존도를 낮추고 외화 유출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희망나눔팀,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실시

부안군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은 지난 8일 저장강박과 건강이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은 긴급 사회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부안군자원봉사센터, 변산로타리클럽, 부안로터케어, 상서면사무소의 기관별 역할에 대한 논의와 개인 방향을 설정해 자원봉사자 모집, 청소 관련 준비물 점검, 대상자 실독 등의 과정을 거쳐 주거 내·외부에 쌓인 쓰레기를 처리하고 소독을 실시했다는 것.

특히 봉사활동에 참여한 30여 명의 회원들은 희망나눔팀 통합사례 관리사로부터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비밀 유지를 한다는 자원봉사 활동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 서약 후 청소가 이루어졌다.

유안숙사회복지과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부안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이 살피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어려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군, 영남 산불 피해 주민들 위해 1115만원 기탁

무주군 공직자들이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모금 운동을 전개했으며 3일동안 27개 실과·읍면에서 597명이 동참해 총 1천115만 원을 모금했다.

9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산불로 너무나 많은 절 잃은 피해 주민 여러분께 무주군 6백여 명의 공직자들이 보내는 위로와 지원을 전한다"라며 "무주군 공직자들의 정성이 피해 지역을 되살리고 주민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무주에서 발생했던 산불도 많은 분의 관심과 도움으로 신속한 진화와 구호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고 주변의



어려움을 살피는 무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서울 은평구 '들꽃길 추억여행단', 남원 주천면 방문

남원시 주천면은 지난 6일 서울시 은평구 '들꽃길 추억여행단' 48명이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첫 방문지인 관한루원에서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 깃든 오작교를 거닐며, 요천가의 벚꽃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천면 용궁마을에서 산수유꽃을 감상, 목포정의 춘향묘를 둘러보며 지리산의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만끽한 참가자들은 매우 즐거워했다.

또한, 점심 식사로 주천면의 전통식당에서 산나물비빔밥과 남원 막걸리로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노환순 주천면장은 들꽃길 추억여행단을 대상으로 제9회 춘향제, 고향사랑기부금,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등을 홍보하며 남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을 당부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마을기업협회, 산불 이재민에 800만원 상당 기탁

정읍시 마을기업협회는 9일 도내 마을기업 20곳과 함께 소성면 산불 이재민을 위해 총 8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생필품을 기탁하며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기탁은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협회를 비롯해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전주시 소재 마을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정성을 모았다. 총 576만원의 현금과 함께, 파우치집·가스레라빵·된장·고추장·청국장 등 228만원 상당의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 마을기업의 사회공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실천한 뜻깊은 행보로 평가된다. 협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공동체 정신의 발현이기도 하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기부는 마을기업협회가 지역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자 펼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마을기업들의 따뜻한 손길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마을기업협회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마을기업으로서 꾸준히 사회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완주소방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들 소방안전 교육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9일, 완주군에 입국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낮은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현장에는 통역이 배치됐으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올바른 대응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사용법 △119 신고요령 등으로, 시청각 자료와 실습을 병행해 안전 행동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완주소방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한대의 마음도 함께 전했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고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따뜻한 완주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기자



남원시, 민원실 전 직원 친절·청렴 교육 진행

남원시는 9일 민원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친절한 민원 응대 태도 △갈등 상황 대처법 △사례 중심 응대 기법 △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 등을 중심으로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민원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민원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인사말 교육도 진행,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기본 인사말과 민원 응대 표현을 중심으로 실습 위주로 진행했다.

강사인 안순영 기획조정실장은 "친절한 민원 응대는 시민이 행정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부분이라며,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다양한 친절·청렴 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